

東醫寶鑑을 四象醫學 領域에서 살펴본 特徵과 끼친 影響

宋 一 炳*

I. 緒 論

東醫寶鑑이 1610년 完成되었고 東醫壽世保元이 1894년 完成되어 李朝時代に 280年間の 時差를 두고 “東醫”라는 이름의 두 醫書가 나왔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비록 두 醫學의 哲學的 背景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東洋醫學의 醫學史的 立場에서 보면 時代의 획을 긋는 중대한 事件인 것이다.

時代的으로 東醫寶鑑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發刊된 鄉藥集成方, 醫方類聚, 醫林撮要나 中國에서 發刊된 醫學正傳, 萬病回春, 醫宗金鑑 등에 나타난 編輯體制의 特徵을 보면 「中風」 「傷寒」門등 治療篇 위주의 醫書이지만 東醫寶鑑의 特徵은 「內景」 「外形」篇의 醫學原理篇과 「雜病」門의 治療篇이 함께 갖추어진 醫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東醫寶鑑 以後에 우리나라에 나타난 醫書로 「醫門寶鑑」 「濟衆新編」 「醫宗損益」 「醫方活套」(1867년 發刊) 등은 東醫寶鑑을 축소 지향적으로 요약한 醫書들로, 治療篇 爲主의 編輯體制를 다시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時代的 背景에서 東醫寶鑑 發刊 284

년이 지난 1894년에 原理論(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과 治療篇(辨證論, 四象人病證論)을 충분히 갖춘 東醫壽世保元이 나온 것이다. 李濟馬는 「醫源論」¹⁾에서 四象醫學이 나오게 된 背景을 설명하면서 “新農黃帝이래 秦漢以前의 病證藥理를 張仲景이 모아 「傷寒論」을 지어 醫道가 始興하였고, 張仲景以後 南北朝 隋唐 宋에 이르도록 朱肱이 病證藥理를 모아 「活人書」를 지어 醫道가 中興하였고, 宋元以後 明以前의 病證藥理를 李杲 王好古 朱震亨 危亦林 등이 이어오다가, 李梴 龔信이 갖추어 얻고 許浚이 갖추어 전하여 「東醫寶鑑」을 지어 醫道가 復興하였다.”고 말하고 東武 自身이 醫道를 이어 「東醫壽世保元」을 지었음을 주장하였다.

이어서 “醫家の 勤勞功業²⁾을 論한다면 張仲景 朱肱 許浚으로 으뜸을 삼고 李梴 龔信으로 그 다음을 삼을 수 있다.”고 하여 許浚의 功績을 크게 찬양하고 있는데, 이는 許浚이 原理篇과 治療篇을 함께 갖춘 東醫寶鑑을 지어, 證治醫學을 完成하는데 큰 공로를 세운 사람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李濟馬의 醫學史觀을 요약한다면 「古方 傷寒論」은 中國에서 出發해서 中國에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서 完成을 보았고, 「後世方的 證治醫學」은 中國에서 出發하였지만 韓國에서 完成을 보았고, 四象醫學은 韓國에서 나왔기 때문에 中國의 醫道는 張仲景 朱肱이 이어왔고, 韓國의 醫道의 脈은 許浚 李濟馬가 이어 간다는 생각이다. 이와같은 醫學史觀을 갖고 있는 李濟馬는 누구보다도 許浚의 醫學思想을 잘 이해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를 四象醫學의 創案에 醫學的方法論으로 援用 했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李濟馬는 「四象人의 病證藥理」³⁾ 를 설명할 때 宋元明의 여러 醫家의 醫書를 引用하였는데 이들 20여종의 醫書들이 대부분 東醫寶鑑에 인용된 86종의 醫書에 포함되고 있음을 알았고, 또 東醫寶鑑 以後에 발간된 醫書는 한권도 볼 수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李濟馬는 많은 醫學的 知식을 東醫寶鑑을 통해 얻었을 것으로 쉽게 짐작이 간다.

本人은 두 醫學사이에 先後의 어떤 밀접한 關係가 있을 것으로 보고 먼저 「東醫寶鑑의 編纂動機의 時代的 背景」 그리고 「東醫寶鑑의 編輯體制와 許浚의 醫學思想」을 요약하고 「東醫壽世保元の 編輯體制와 李濟馬의 醫學思想」을 비교하여 두 醫書 사이에 나타난 醫學的方法論의 共通點을 알아보아 東醫寶鑑이 四象醫學 成立에 끼친 影響을 알아 보고자 한다.

II. 本 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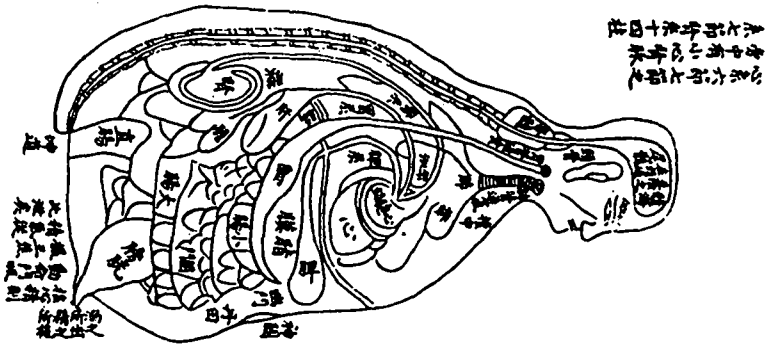
1) 東醫寶鑑의 編纂動機와 時代的 背景

李延龜(1564 ~ 1634)는 東醫寶鑑의 「序文」에서 “멀리 倉越부터 가깝게는 劉張朱李에 이르기까지 많은 學者가 나왔으나 論說이 紛然하고 緒餘가 표절되어 다투어 문벌을 세우므로 書冊은 많아지고 醫術은 더 어두워져 靈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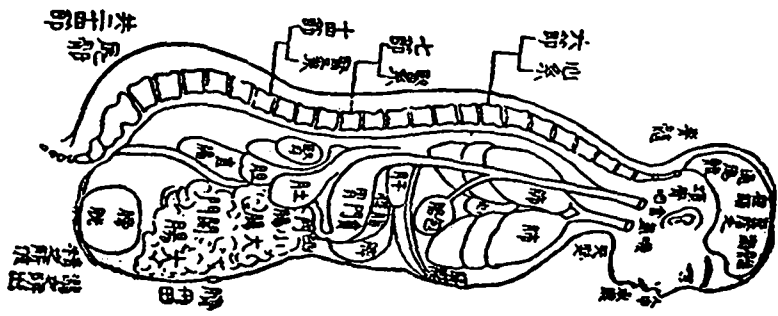
의 本旨에 어긋나는 일이 적지 않고 세상 庸醫들은 竅理를 몰지 못하고…… 活人を 구하다가 殺人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여 그 당시 醫學理論의 혼란상을 지적하고 새로운 통일된 醫學理論의 整理가 필요한 背景을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最初로 高句麗 平原王 3年 吳人 知聰이 內外典 藥典 明堂圖등을 갖고왔다는 記錄이 있어⁴⁾, 內經이 우리나라에 들어 왔음을 알수 있으나, 內經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어 醫學原理로 정착되지 못하였다. 李朝初에 간행된 「鄉藥集成方」과 「醫方類聚」에도 內經이 직접 引用되지 못하고 간접적인 引用만 나타나고 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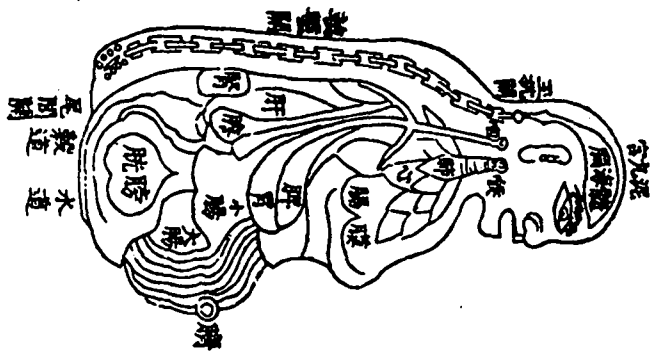
한편 中國의 宋代醫學의 特徵은 性理學과 더불어 傷寒論과 運氣學이 발달되고 處方書(聖惠方, 聖濟總錄)가 나와 原理醫學 보다는 治療醫學(臨床醫學)이 발달되었다. 金元代醫學은 內經을 中心으로 醫學原理가 연구되기 시작해서 「四大家說」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學說들은 뒤에 「醫學正傳」에 정리 연구되어 「醫林撮要」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도입하게 된다. 東醫寶鑑과 같은 시대에 발간된 「醫林撮要」에서도 內經이 직접 引用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背景에서 宣祖의 命을 받은 許浚은 統一된 醫學體系를 만들기 위하여 內經을 研究하고 內經의 原文을 직접 引用하여 東醫寶鑑에 導入한다. 明代醫書인 「醫學入門」⁶⁾과 「萬病回春」⁷⁾에 그려진 人體生理解剖圖에는 人體 解剖生理의 述語들이 사용되었고, 東醫寶鑑에 그려진 身形藏府圖에는 「仙經」에서 나온 背三關(玉枕關, 轆轤關, 尾閭關)과 「翠虛篇」에서 나온 “泥丸宮” 등 道敎的 生理 述語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었다.⁸⁾ 따라서 東醫寶鑑에서는 內經과 道敎哲學이 합해서 醫學原理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醫學入門



●側身人圖
 增補萬病回春



圖府藏形身

東醫寶鑑內景篇

2) 東醫寶鑑의 編輯體制와 許浚의 醫學思想
 許浚은 東醫寶鑑 「集例」에서 “黃庭經에는 內經에 대한 글이 있고 醫書에도 內外境界에 대한 그림이 있다…… 이제 이 책은 먼저 內經의 精氣神 臟腑로 內篇을 삼고, 頭面 手足 筋脈 骨肉을 取해서 外篇을 삼고, 五運六氣 四象 三法을 모으고 內傷 外感의 病證을 벌려 雜篇을 삼고 마지막으로 湯液 針灸篇을 마련하였다”고 하여 東醫寶鑑의 編輯體制에 대하여 道家의 「黃庭經」의 精神에 따라 「內景」 「外形」篇을 모아 이를 醫學原理篇으로 삼고 雜病篇을 治療篇으로 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內景 外形」의 精神은 小宇宙인 人體의 形象을 立體的으로 그대로 醫書에 반영시켜 「氣裏形表」⁹⁾의 精神을 나타낸 것이다. 許浚은 이러한 「形氣論의」¹⁰⁾ 原理를 바탕으로 「身形」篇을 만들어 東醫寶鑑의 맨 앞부분에 記述하고 이를 自身の 醫學精神으로 표현하고 있다.

가) 「身形」篇의 完成과 形象醫學의 追求

許浚은 東醫寶鑑 「身形」篇에서 形氣論의 說明방법을 導入하여 生命現象을 說明하고 있는데 「形氣之始」에서 “天形은 乾에서 發生하는데 이 속에는 太易, 太初, 太始 太素의 네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하여 宇宙生成에 形氣의 시작을 말하였고 「胎孕之始」에서 “天地之精氣가 化萬物之形하고 父之精氣爲魂 하고 母之精氣爲魄이 되어 一月懷에 其胎始醱하고……”에서 氣가 形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말하며 人身形成을 說明하고 있다.

自然과 人間의 構造的 想應性を 說明하기 위하여 「身形藏府圖」에서 孫眞人의 말을 引用하여 “天地之內 以人爲貴하니 頭圓象天 足方象地하고 天有四時 人有四肢하고 天有五行 人有五臟하고 天有六極 人有六腑하고……”를 소개한다.¹¹⁾ 이러한 조건을 갖고 태어난 人間

이 모두 자기 體形의 大小 長短과 形色의 모습이 달리 나타나는 이유는 精氣神의 攝生과 臟腑의 虛實에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바탕에서 疾病이 발생하면, 비록 疾病의 外證이 같아 보이지만 治療의 方法은 그 사람의 形色 肥瘦와 臟腑의 虛實에 따라 그 治法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身形藏府圖」에서 朱丹溪의 말을 引用하여 소개한다. “凡人之形은 長不及短하고 大不及小하고 肥不及瘦하며 人之色은 白不及黑하고 嫩不及蒼하며 薄不及厚하니 而況肥人濕多하고 瘦人多火니라 白者肺氣虛하고 黑者腎氣足하니 形色既殊하고 臟腑亦異하면 外證雖同이나 治法이 迥別이니라”하여 사람의 形體는 長大肥가 短小瘦만 못하고 사람의 色澤은 白嫩薄이 黑蒼厚만 못하고 거기에서 體形의 肥瘦와 臟腑의 虛實에 따라 疾病의 예후와 治法이 달라진다고 보고 人體生理 現象에서 形色의 차이와 體形의 肥瘦 臟腑의 虛實 현상을 形氣論의 說明방법을 이용하여 說明하는 이를 形象醫學으로 體系化하여 臨床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許浚醫學의 精神이다.

「身形」篇을 總論的 人體生理學이라고 본다면, 內景의 五臟六腑와 外形篇의 頭面 手足 筋脈 骨肉의 機能 說明은 各論的 解剖生理學이라 할 수 있다. 五臟六腑의 機能的 說明을 하기 위하여 ‘五臟의 形象’ ‘五臟部位’ ‘五臟屬類物’ ‘五臟大小’ ‘五臟傷證’ ‘五臟病證’ ‘五臟病 虛實’ ‘五臟外候’ ‘五臟傳受’등을 說明하고 있는데 이는 解剖學的 形態와 生理的 機能을 함께 說明하는 “形象의 機能 說明”임을 알 수 있다. 外形의 여러 身體器官들의 機能 說明도 五臟六腑의 表裏 立場에서 다루고 있음을 보아 形象의 解剖生理임을 알 수 있다.

疾病을 진찰하는 데에도 形象의 診察을 추구하고 있는데 「審病」門에서 먼저 「神聖工巧」

의 望門問切 즉 四象을 말하였고,¹²⁾ 「診病之道」에서 “善診者 察色按脈”이라 하고 “診病之道는 觀人勇怯하고 骨肉皮膚로 能知其情하여 以爲診法也”라 하였으며, “診察이란 形色과 脈證의 合一을 求하는 것”¹³⁾이라 말하고 있는데 形色은 形象的 診察에서 나오는 것이다. 「辨證」門의 「寒熱傷形氣」에서 “喜怒傷氣와 寒暑傷形”을 소개하고 「肥瘦辨病候」에서 “肥의 澤 不澤과 瘦의 無澤을 말하여 血氣의 有餘不足과 血氣具不足”을 말하였으며, “人黑瘦者 易治하고 肥大肉厚亦白者 難愈한다”고 소개하였고, ‘勇怯異形’을 소개하고 있어 體形의 形象에서 辨證을 求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用藥」門의 「形氣用補瀉」에서 “形氣不足 病氣有餘와 形氣有餘 病氣不足과 形氣不足 病氣不足”에서 用藥의 補瀉를 말하였고, 「肥瘦用藥」에서 “肥人氣虛多痰과 瘦人氣虛有火”를 말하였고 “白人不可多服發散藥이요 黑人不可多服黃芪니라”하여 形氣의 不足有餘와 肥瘦에 따라 用藥의 方法을 달리하여 形象的 用藥을 求하였다.

「雜病」門의 外感 內傷의 病證 설명에 形證 病證의 精神을 표현하려고 努力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數個 種類의 症狀을 나타내는 病證에는 몇가지로 구분하여 그 證을 표현하고 있지만 단순한 證으로 요약 될수 있는 病證은 “形證病證”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를 소개하면 “痺病 形證 破傷風形證 暑病形證 太陽形證 陽明形證 少陽形證 太陰形證 少陰形證 厥陰形證 霍亂形證 浮腫形證 脹滿形證 消渴形證 瘡疾形證, 癰疽形證 邪祟形證 疔疽形證” 등이 있는데 “形證病證”의 基本 精神은 복잡한 內容을 갖추고 있는 病理現象을 外形의 取象을 통하여 特徵을 요약해서 理解하려는 방법이다.

이상에서 東醫寶鑑의 ‘身形篇’, ‘五臟六腑와 外形의 機能 說明’, ‘審病’, ‘辨證’, ‘用藥’

‘內外病證’을 통하여 許浚이 形象醫學의 추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것을 알게되었고 이는 뒤에 四象醫學에서 體質의 形象醫學이 나올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治療醫學의 擴大와 豫防 및 養生思想

許浚은 「集例」에서 “道家는 淸靜修養을 根本으로 삼고 醫學은 藥餌 針灸를 治療의 方法으로 삼고 있는데 道家는 精을 얻은 반면 醫學은 粗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여 道教의 心身 修養이 醫學의 藥物 針灸에 의한 方法보다 疾病에 대한 根本的인 對應方法임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醫學 精神의 藥과 針으로 疾病을 고치겠다는 생각에서 마음을 조절하여 病을 고치고 豫防과 養生을 함께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變化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東醫寶鑑 「身形」篇에서 「羅仙」¹⁴⁾의 말을 引用해서 “欲治其疾 先治其心”¹⁵⁾과 “治未病之先者”¹⁶⁾의 精神을 소개하여 疾病의 豫防을 말하고 있다.

養生을 위해서는 “保養精氣神”을 말하고, 특히 東醫寶鑑 「精」門에서 象川翁의 말을 引用하여 “精이 氣를 낳고 氣가 神을 낳으니 一身을 保全하는데는 이보다 더 重要한 것이 없다. 養生함에는 무엇보다도 精을 重이 여겨야 한다. 精이 가득하면 氣가 活發하며 氣가 活發하면 神이 旺盛한다. 神이 旺盛하면 몸이 건강하면 病이 적다”하여 養生의 方法을 소개한다. 그 외에 「按摩導引法」과 「還丹內煉法」을 소개하고 「攝養要訣」에서 「太乙真人」의 ‘七禁文’¹⁷⁾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道家의 養生術에서 나온 것이다.

(나) 韓國醫學의 獨自의 發展

許浚은 「集例」에서 “中國의 醫學을 北醫(東垣)와 南醫(丹溪)로 나누어 醫에 南北의 이름이 있으니 우리나라는 東方에 치우쳐 있

어 醫藥의 道가 連綿하게 끊이지 않았은즉 우리나라의 藥도 또한 ‘東醫’라 할 수 있지 않은가”하여 韓國 醫學을 하나의 독립된 醫學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자신이 지은 東醫寶鑑의 醫學精神이 이제까지 발간된 中國 醫書들 보다 새로운 治療醫學의 擴大精神에서 나왔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서 「集例」에서 “醫術을 배우려면 먼저 本草와 藥性を 익혀야 하는데 本草는 浩繁하고 議論이 일치하지 않고 收載되어 있는 약이 그 절반은 현재에 알 수 없는 약이니 그런것을 구별하여 利用하기 쉽게하고 멀리 中國에서 약을 구해올 費단을 없앤다.”하여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本草나 處方 그리고 用量을 고쳐서 우리 실정이나 體質에 맞는 韓國의 醫藥을 만든다는 뜻에서 우리나라에서 生産되는 鄉藥을 鄉名 產地 採集日月修治 등을 상세히 기록하며 누구나 쉽게 구하여 鄉藥을 쓰게 하였고, 臨床의 體驗에서 얻은 處方과 用量을 實用性 있게 수용하여 疾病 치료에 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愛民精神이나 實用精神(實學精神)은 복잡한 醫學理論을 統合醫學原理로 재정리한 東醫寶鑑 精神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精神은 뒤에 東武가 四象醫學을 創案하게 된 重要한 動機가 된다고 생각한다.

3) 東醫壽世保元の 編輯體制와 李濟馬의 醫學思想

著者は ‘李濟馬 哲學의 學文的 背景과 四象醫學의 成立에 대한 考察’에서 四象醫學이 儒學의 背景에서 나왔음을 말한바 있지만 李濟馬는 李朝末의 實學者로 기존의 性理學에 대한 改新儒學의 立場에서 그의 哲學을 原始儒學(四書三經)의 再解析에서 찾고 있다. 모든 事物의 現象을 ‘事心身物’로 要略해서 설명 함으로써 主理論의 性理學과 主氣論의인 周易의 精

神을 함께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事心’의 形而上學과 ‘身物’의 形而下學 現象을 동시에 파악하여 설명하는 形心論的 取象方法의 「形象哲學」을 완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宇宙의 事物現象이나 社會의 儒現象 그리고 人間의 心身現象을 설명하고 있다.

李濟馬는 인체의 천부적 ‘四象體質說’¹⁸⁾을 설명하기 위하여 「東醫壽世保元」의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에서 四象哲學을 背景으로 哲學의 人間과 生理的 人間을 四象說的으로 설명하여 이를 四象醫學의 原理篇으로 삼고, ‘辨證論’과 ‘四象病證論’을 治療篇으로 삼은 것을 알 수 있다.

李濟馬는 心身關係의 人間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人稟臟理’ (즉 四象人의 臟腑의 大小)를 말하고 있고, ‘人趨心慾’ (鄙薄貧儒)를提示 하였는데 ‘人稟臟理’는 “天稟之已定”이라 하여 평생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太少陰陽人의 體質이 固定된다고 하였고, ‘人趨心慾’은 “天稟之未定”으로 後天的 努力 如何에 따라 心之清濁과 闊狹이 달라진다고 보아 이를 「治心治病」의 理論的 背景으로 설명하고 있다.

李濟馬는 疾病의 原因을 설명하기 위하여 「醫源論」에서 “蓋古之醫師 不知心之愛惡所欲 喜怒哀樂偏着者 爲病而 但知脾胃水穀風寒暑濕觸犯者 爲病故……”라 하여 마음(喜怒哀樂)이 疾病의 原因이 된다고 보아 “性情醫學”을 주장하였다. 「四端論」에서 喜怒哀樂의 暴動浪動은 모두 行身不誠 知人不明에서 나온다고 하여 知行的 不誠實에서 모든 마음의 갈등이 생긴다고 보고 마음의 안정을 강조 하였다.

李濟馬는 「臟腑論」에서 人體 生理機能을 설명하면서 四臟(肺脾肝腎)은 「喜怒哀樂」의 性情에 의하여 直升 橫升 放降 陷降의 기운으로 나누어지고, 四腑(胃脘 胃 小腸 大腸)는

水穀之氣의 溫熱涼寒의 기운이 「四腑의 形象」에 의해서 輕清 薰蒸 平淡質重으로 나누어지고, 이들중 水穀之氣의 清氣는 「耳目鼻口」의 힘을 빌려 「神氣血精」이 되고 이들은 「後四海」로 들어가 「臍膜血精」을 이루고 滲汁은 「肺脾肝腎」의 힘을 빌려 「津膏油液」이 되어 「前四海」를 이루고, 이들중 濁滓는 四腑를 도와주고, 「臍膜血精」속에 있는 濁滓는 「頭手腰足」의 기능(直伸之力, 能收之力, 寬放之力, 屈強之力)에 의해 鍛鍊 成物되어 皮毛 筋肉 骨을 이룬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李濟馬의 臟腑論은 水穀之氣의 清氣가 滲汁 濁滓를 통하여 成物의 形狀이 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이때 耳目鼻口 肺脾肝腎 頭手要足의 形象의 生氣機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形象의 生氣論」이라 할 수 있다.

李濟馬는 四象人의 體質鑑別을 하기 위해서 「辨證論」에서 四象人의 生理的 現象에서 나오는 體質證의 개념과 病理的인 現象에서 나오는 體質病證의 辨證개념의 두가지를 말하고 있다. 生理的 體質辨證에는 四象人의 臟理와 心慾이 함께 어울려 어느 특정의 內的要素가 형성되면 반드시 外形의인 形象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보고 이를 體形氣象과 容貌詞氣 그리고 體形의 長短 大小로써 그 특징을 取像하고 평소 지니고 있는 性質과 材幹을¹⁹⁾ 이용해서 辨證의 자료로 삼고 있으며 그 외에 生理的 습관에서 大小便 飲水 發汗 消化狀態를 보고 脈狀 肌肉 恒心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人物 形容을 자세히 商量하여 取像해서 內的要素의 특징이 偏, 倚, 過, 不及의 어느쪽에 치우쳐 있나를 辨別하는 形象辨證인 것이다.

「四象病證論」에서 體質病證은 表病證과 裡病證에 寒證과 熱證의 개념을 적용시키고 거기에 輕證

重證 危證을 구분하여 나누고 이들에게 각각 精神病的인 心理狀態와 肉體病的 病理狀態를 함께 도입 설명하여 전체적으로 病證의 輕重 緩急 順逆의 개념을 나타내려는 要略精神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四象人의 形象의 形證病證을 표현한 것이다.

이상에서 李濟馬는 人間의 心身論的 生理觀 病理觀 辨證觀에서 「形象의 生氣論」「形象의 形證病證」「形象의 體質病證」을 말하여 形象醫學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는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李濟馬는 「廣濟說」에서 豫防醫學과 養生을 설명하기 위하여 人間의 生活속에서 살아가는 생활의 知慧를 제시하고 있어 生活的 正己와 醫學的 正己를 나누어 말하고 있다. 즉 생활속에서 「酒色財權」²⁰⁾의 남용을 경계하고 中庸을 지킴으로써 生活的 調和와 마음의 갈등을 豫防할 수 있다고 보아 醫學的 正己보다 평소의 生活的 正己를 중하게 여겼다.

그는 豫防醫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知行論」「勸壽論」「五福論」등을 따로 著述 하였는데 이는 治療醫學 보다 豫防醫學을 강조한 것이라 생각된다. 養生을 설명기 위하여 「辨證論」에서 “太陰人은 察於外而 恒寧靜恬心하고, 少陽人은 察於內而 恒寧靜懼心하고, 太陽人은 退一步而 恒寧靜急迫之心하고, 少陰人은 進一步而 恒寧靜不安定之心하라.” 하였고 또 말하기를 “太陽人 恒戒怒心哀心하고 少陽人 恒戒哀心怒心하고 太陰人 恒戒樂心喜心하고 少陰人 恒戒喜心樂心하라” 하였다. 그리고 臟腑論에서 “耳目口鼻之用을 深遠廣大則 精神氣血生也요, 肺脾肝腎之用을 正直中和則 津膏油液充也니라” 하였는데 이상의 養生의 精神을 요약하면 평소 性情의 偏急을 버리고 마음의 恒心을 경계하고 四象人의 性氣와 情氣²¹⁾를 이해하며 이에 맞추어 생각을 深遠廣大하게 하고 行動을 正直中和 하게 하면

心身이 건강하게 된다고 하여 올바른 知行을 강조하고 있다.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 卷末에 “家家知醫하고 人人知病然後에 可以壽世保元이니라”의 구절로 李濟馬 醫學思想을 요약하고 있는데 누구나 醫學을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利用케 하여 庶民醫學에 도달하는 것이 그의 목표인 것이다. 복잡한 醫學理論을 實用的으로 整理 要略하여 形心論의 形象醫學인 四象醫學을 세상에 넓혀서 집집마다 病의 근본을 알게 하는것이 實學者인 李濟馬의 醫學精神인 것이다.

Ⅲ. 結 論

이상에서 東醫壽世保元의 編纂動機와 時代的背景 그리고 東醫寶鑑의 編輯體制와 內容에서 許浚의 醫學思想을 비교 고찰하여 醫學方法論의 立場에서 두 醫學의 醫學思想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許浚은 기존의 醫學理論들을 새로운 醫學體系로 統合 整理하기 위하여 內經과 道教精神을 導入하여 醫學原理篇을 만들고 이를 治療篇에 이용하여 證治醫學을 完成한다. 形氣論의 理論을 바탕으로 하며 天人關係의 人間觀을 설명하고 「身形」「五臟六腑의 機能설명」「審證」「辨證」「用藥」「內外病證」 설명에 形象論의 方法을 導入하여 설명하고 이를 體系化시켜 形象醫學을 追求 하였다.

李濟馬는 儒學哲學의 背景에서 「事心身物」의 四象哲學을 完成하고 四象哲學을 바탕으로 하여 기존의 證治醫學을 再統合 整理하여 四象醫學을 完成한다. 心身論的 人間觀을 提示하고, 形心論의 理論의 바탕에서 人體의 生理的 病理觀 辨證의 설명에 形象論의 方法을 導入하

여 形象的 四象體質 醫學을 완성한다.

이로써 두 醫學의 方法論的 共通點을 찾을수 있었는데 첫째 두 醫書의 編輯上에 나타난 특징으로 다른 醫書에 비하여 原理篇이 강조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두 醫學이 다함께 새로운 醫學理論의 實用的 整理要略이 그 目的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두 醫學에서 다함께 治療醫學의 擴大精神을 말하고 있으며 養生과 豫防優先精神을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藥物的 治療方法에서 精神的 治療方法으로 擴大하여 “以道療病”과 “治心治病” 精神을 말하였다. 그러나 養生의 方法에서 “清淨修養”의 道家의 思想과 “生活的 正己와 知行的 努力”의 儒教의 思想과의 差異가 있다.

셋째 두 醫學에서 다함께 形象醫學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許浚이 추구한 劃一的 形象醫學이 四象醫學에서는 四體質的 形象醫學으로 바뀌었고, 天人關係의 人間觀에서 나온 形氣論의 形象醫學이 心身關係의 人間觀에서 나온 形心論的 形象醫學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두 醫學에서 다함께 韓國醫學의 獨自的 發展精神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治療醫學의 擴大精神, 形象醫學의 追求精神, 實用的 要略精神, 庶民醫學의 구현精神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東醫寶鑑에 나타난 醫學思想은 東武의 四象醫學 탄생에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註

- 1) 「衰周 秦漢以來 扁鵲有名而 張仲景具備得之 始爲成家著書 醫道始興. 張仲景以後 南北朝隋唐 醫繼之而至于宋 朱肱具備得之 著

- 活人書 醫道中興。朱肱以後 宋元李杲王好古朱震亨危亦林繼之而至于明 李梴龔信具備得之 許浚具備傳之 著東醫寶鑑 醫道復興」 「東醫壽世保元, 醫源論」。
- 2) 「蓋神農黃帝以後 秦漢以前病證藥理 張仲景傳之。魏晉以後 隋唐以前病證藥理 朱肱傳之。宋元以後 明以前病證藥理 李梴龔信許浚傳之。若以醫家勤勞功業論之則 當以張仲景朱肱許浚爲首而 李梴龔信次之」 「東醫壽世保元, 醫源論」。
 - 3) 「少陰人 病證藥理 張仲景庶幾乎昭詳發明而 宋元明諸醫盡乎昭詳發明」 「東醫壽世保元, 醫源論」。
 - 4) 金斗鍾 韓國醫學史 서울 探究堂 1981 p.25,29.
 - 5) 朴贊國 東醫學의 成立에 對한 研究 龜巖學報 서울 1991 p.25.
 - 6) 李 梴, 醫學入門 東方書店 臺灣 p.10.
 - 7) 龔廷賢 萬病回春 大中國圖書公司 臺北 中華民國46年 p.32.
 - 8) 東醫寶鑑 「內景」「身形」篇의 背有三關에서 “仙經曰 玉枕關 轆轤關 尾閭關 皆精氣升降往來之道路也”라 하였고 “翠虛篇曰 三關往來氣無窮一道百脈朝泥丸”이라 하였다.
 - 9) 「素問」「陰陽離合篇第六」「陰陽種種積傳爲一周 氣裏形表 而爲相成也」。
 - 10) 「東醫寶鑑」「身形」篇 「胎孕之始」에서 “天地之氣 化萬物之形”이라 하였음.
 - 11) 「天地之內以人爲貴 頭圓象天 足方象地 天有四時 人有四肢 天有五行 人有五臟 天有六極 人有六腑」 「內景」篇 「身形」。
 - 12) 「望而知之謂之神 聞而知之謂之聖 問而知之謂之工 切脈以知之謂之巧 以內知之曰神 以外知之曰聖 神聖工巧謂之四象」 「雜病篇」 「神聖工巧」。
 13. 「五臟之象可以類推 五臟相音可以意識 五色微診可以目察 能合脈色可以萬全」 「雜病篇」 「診病之道」。
 14. 「古之神聖之醫能療人之心 豫使不治於有疾 今之醫者惟知療人之疾而不知療人之心 是猶捨本逐末 不窺其源而攻其流欲求疾愈 不亦愚乎」 「內景」 「身形篇」 「以道療病」。
 - 15) 「太白真人曰 欲治其疾先治其心…」 「內景」 「身形」 「以道療病」。
 - 16) 又曰至人治於未病之先 醫家治於已病之後 治於未病之先曰治心曰修養 治於已病之後者曰藥餌曰砭炳 雖治之法有二而病之源則一 未必不有因心而生也」 「內景」 「身形」 「以道療病」。
 - 17) 「太乙真人 七禁文曰 一者小言語養內氣 二者戒色慾養精氣 三者薄滋味養血氣 四者燕精液養藏氣 五者莫嗔怒養肝氣 六者美飲食養胃氣 七者小思慮養心氣」 「內景」 「身形」 「攝養要訣」。
 - 18) 「太少陰陽之臟局短長陰陽之變化也 天稟之已定固無可論 天稟之已定之外又有短長 而不全其天稟者則人事之修而命之傾也」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 19) 性質, 材幹: 太陽人の 性質은 疏通 果斷性, 太陰人の 性質은 成就力, 少陽人の 性質은 剛武, 少陰人の 性質은 端重을 말하고 太陽人の 材幹은 交遇, 太陰人の 材幹은 居處, 少陽人の 材幹은 事務, 少陰人の 材幹은 黨與를 말한다.
 - 20) 四象人の 「酒色財權」에 대한 경계는 즉 太陽人은 「酒」를, 少陽人은 「色」를, 太陰人은 「財」를, 少陰人은 「權」을 경계해야 된다. 「廣濟說」
 - 21) 「太陽之性氣 恒欲進而不欲退, 少陽之性氣 恒欲舉而不欲措, 太陰之性氣 恒欲靜而不欲

動，少陰之性氣 恒欲處而不欲出」 「太陽之情氣 恒欲爲雄而不欲爲雌，少陰之情氣 恒欲爲雌而不欲爲雄，少陽之情氣 恒欲外勝而不欲內守，太陰之情氣 恒欲內守而不欲外勝」 「擴充論」。

參 考 文 獻

1. 許 浚：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5.
2. 李濟馬：東醫壽世保元 서울 壽文社 1973.
3. 李 挺：醫學入門 臺灣 東方書店.
4. 龔廷賢：萬病回春 臺灣 大中國圖書公司.
5. 虞天民：醫學正傳 서울 醫藥社 1973.
6. 楊禮壽：醫林撮要 서울 世宗社 1967.
7. 洪淳用, 李乙浩：四象醫學原論 서울 壽文社 1973.
8. 李濟馬：格致藥 서울 太陽社 1985.
9. 金斗鍾：韓國醫學史 서울 探究堂 1965.
10. 洪元植：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所 1978.
11. 鄭遇悅：東醫寶鑑과 許浚의 醫學思想 서울 龜巖學報 1991.
12. 朴贊國：東醫學의 成立에 對한 研究(許浚의 東醫寶鑑을 통하여) 서울 龜巖學報, 1991.
13. 宋一炳：李濟馬 哲學의 學問的 背景과 四象醫學의 成立에 對한 考察 서울 四象醫學會誌 1991.